SCIE 등재를 위한 노력-실패, 그리고 성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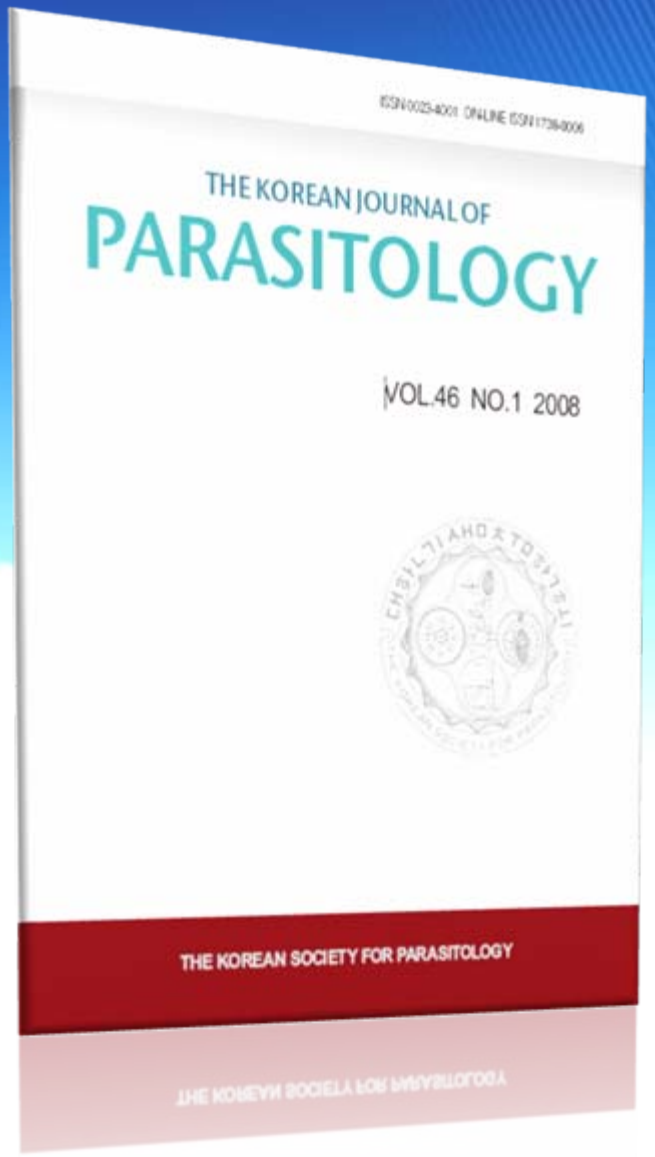
- 대한기생충학회 -

발표 채 종 일

대한기생충학회 편집위원장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

1. 대한기생충학회 발간 학술지 소개



잡지명: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(영문)

발행처: 대한기생충학회

인쇄: 서울대학교출판부(2008년부터는 Academiya 사)

발간횟수: 계간(연 4회)

등재

SCIE, Medline/Index Medicus, PubMed, Helminthological Abstracts, Protozoological Abstracts, Tropical Diseases Bulletin, Scopus, Google Scholar, Review of Medical and Veterinary Entomology, Zoological Record, Biological Abstracts, KoreaMed, 학진 등.

홈페이지: www.parasitol.or/kr (PubMed-link 전문 무료제

편집인: 채종일

부편집인: 홍성종, 손운목, 양현종

편집위원: 국내 17인, 외국 10인

2.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발간의 역사

KJ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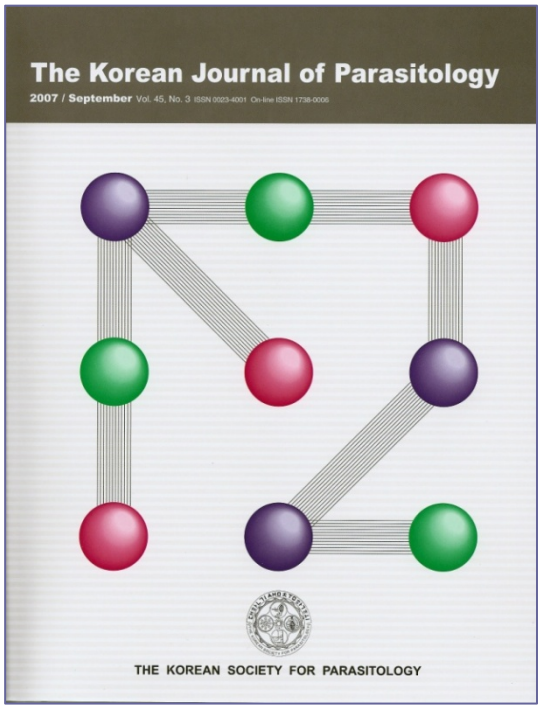
창 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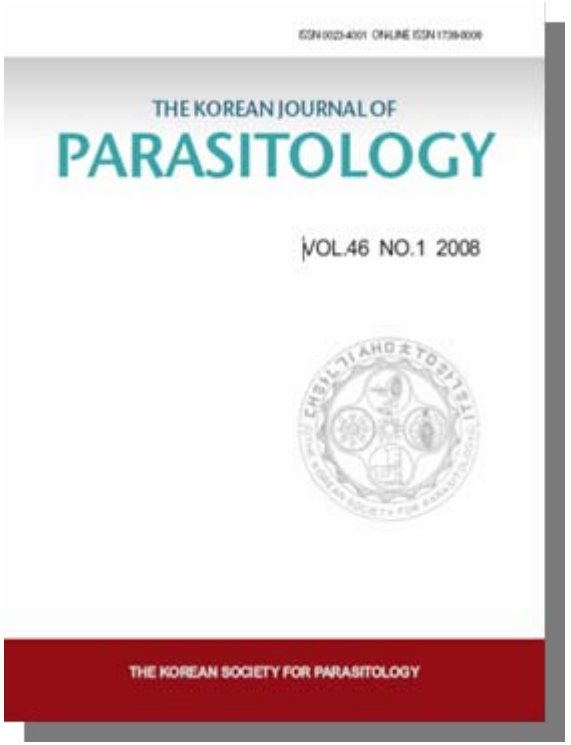
1963년 6월 20일 '대한기생충학회잡지'란 제호로 처음 창간.

국문 논문 및 영문 논문을 혼합하여 게재.

창간 해는 연1회 발간, 제2권부터 연 2-3회, 1988년부터 연 4회 발행.

1993년부터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로 잡지명 변경.





2.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발간의 역사

KJP

국제화

'기생충학잡지' 국제화의 노력(영문 논문 수를 증가시킴)

➔ 1990년에 Index Medicus 및 Medline 등재 결정.

➔ 제호를 영문으로 바꾸고, 완전히 영문 학술지 바꿈 (1993)

2008년 SCI-expanded 진입의 중요한 계기.

발돋움

'기생충학잡지'는 1965년 3월 16일 문공부(현 문광부)에 정식 등록.

매 호 500부-1,000부를 발간.

1975년부터 33년간 '서울대학교출판부'에서 편집, 인쇄.

논문의 질이나 편집 체재, 그림, 사진, 교정, 인쇄 국제 수준급 상승.

3. SCIE 등재를 위한 노력과 실패의 연속

위 기

Medline, Index Medicus 및 PubMed 등재 후 약 5년간 순항.

그러나 1998년 경부터 국내에 **SCI 붐.**

최상급, A급 논문을 모두 국제 SCI 학술지에 투고 ➔ 국내 학술지는 원고난에 빠짐.

매 호 학술지 논문 수 부족 ➔ 심각한 위기 봉착

노력과 실패

미국 ISI 사에 5 차례 KJP의 SCI 등재 신청. ➔ 모두 탈락 통보.

설상가상으로 학술지는 더 얇아지고 우수한 논문은 모두 외국에 투고.

고무적인 현상의 하나는 KJP 논문의 **impact factor가 점점 향상**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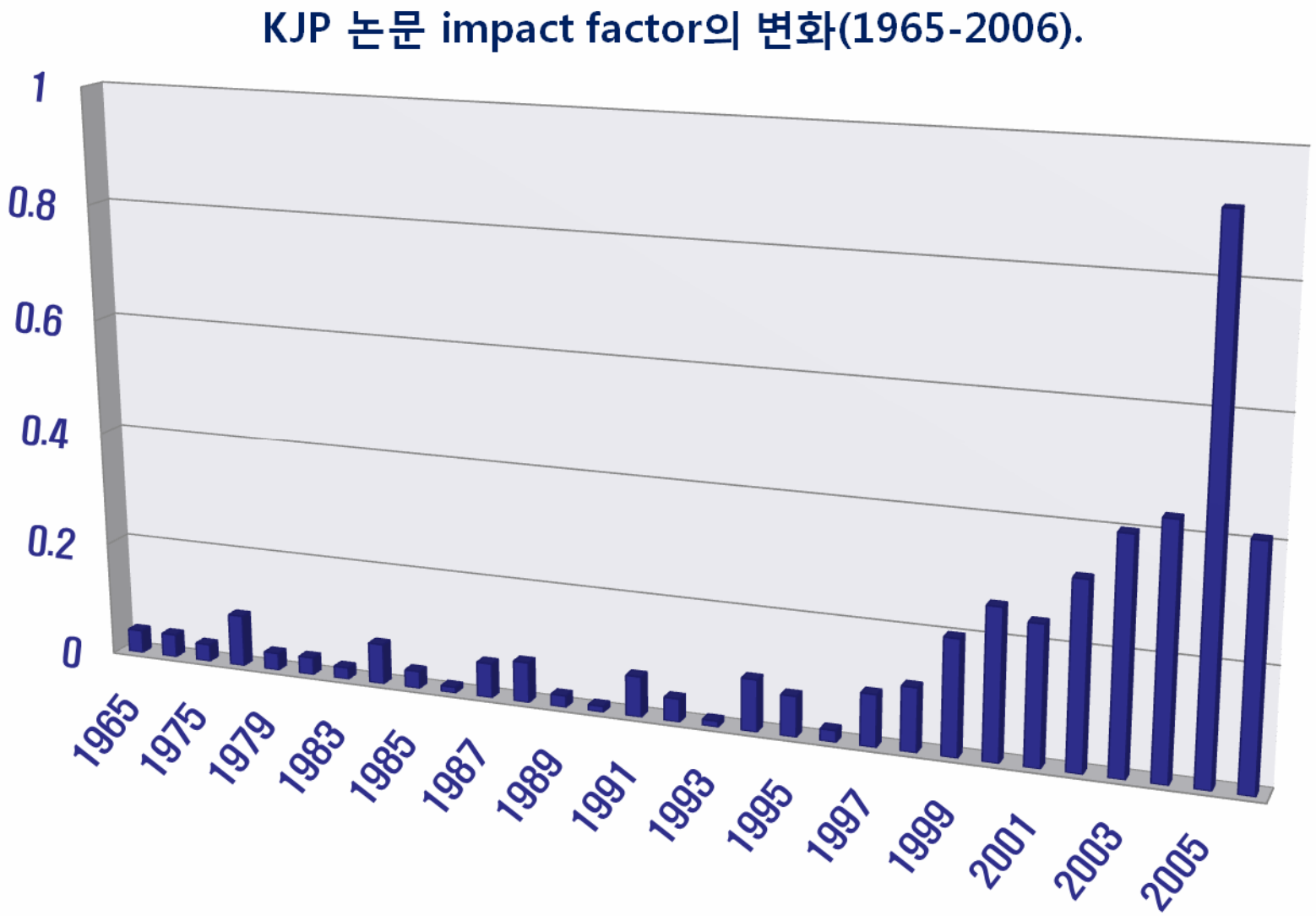
태국, 일본, 터키, 이란 등 외국 저자들로부터 투고되는 논문 수 증가.

➔ 적은 투고논문 수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논문 선별 잣대를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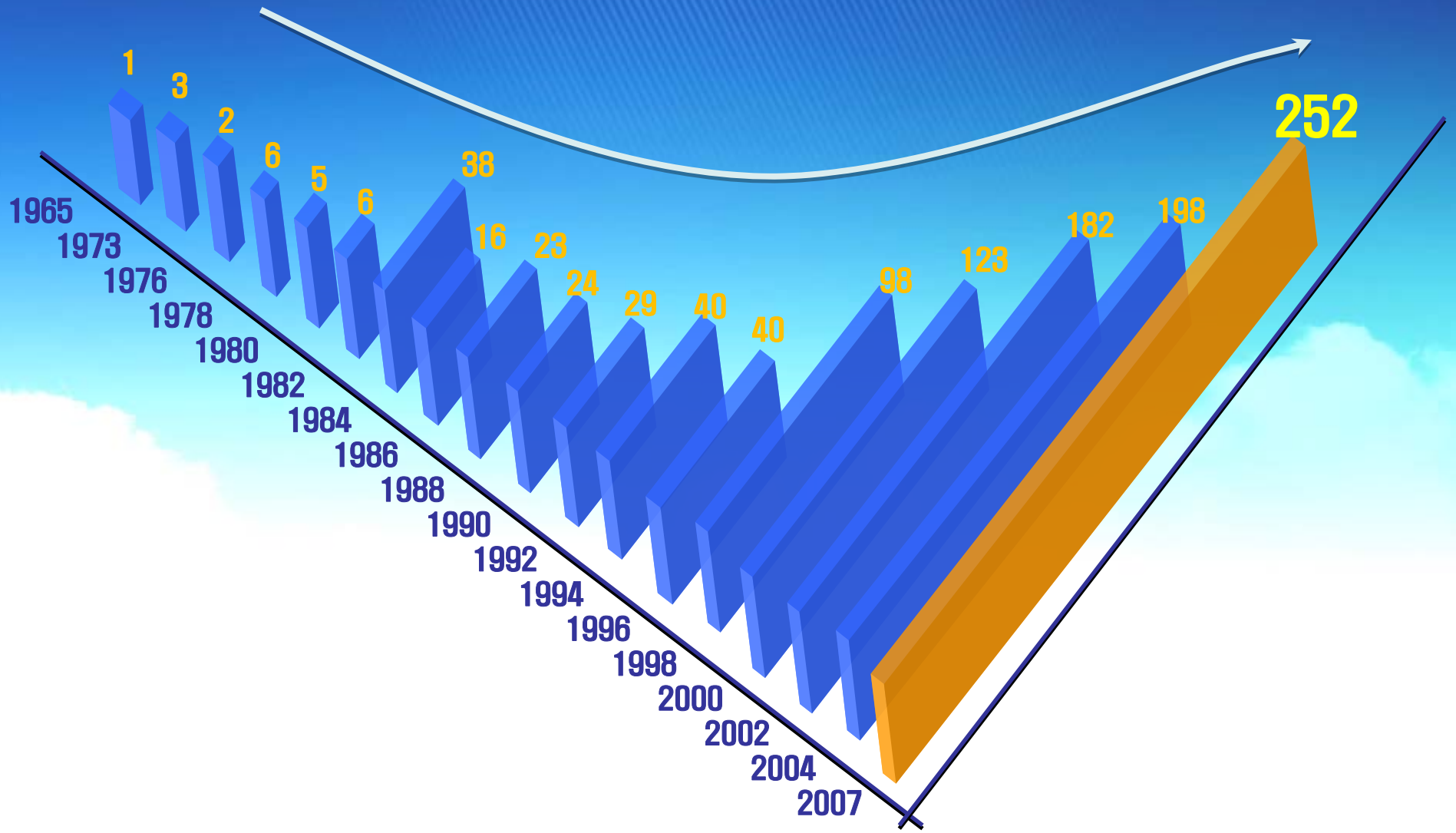
:: KJP의 연도별 논문 게재율(개재논문/접수논문)

2003년-90%, 2004년-80%, 2005년-78%, 2006년-85%, 2007년-7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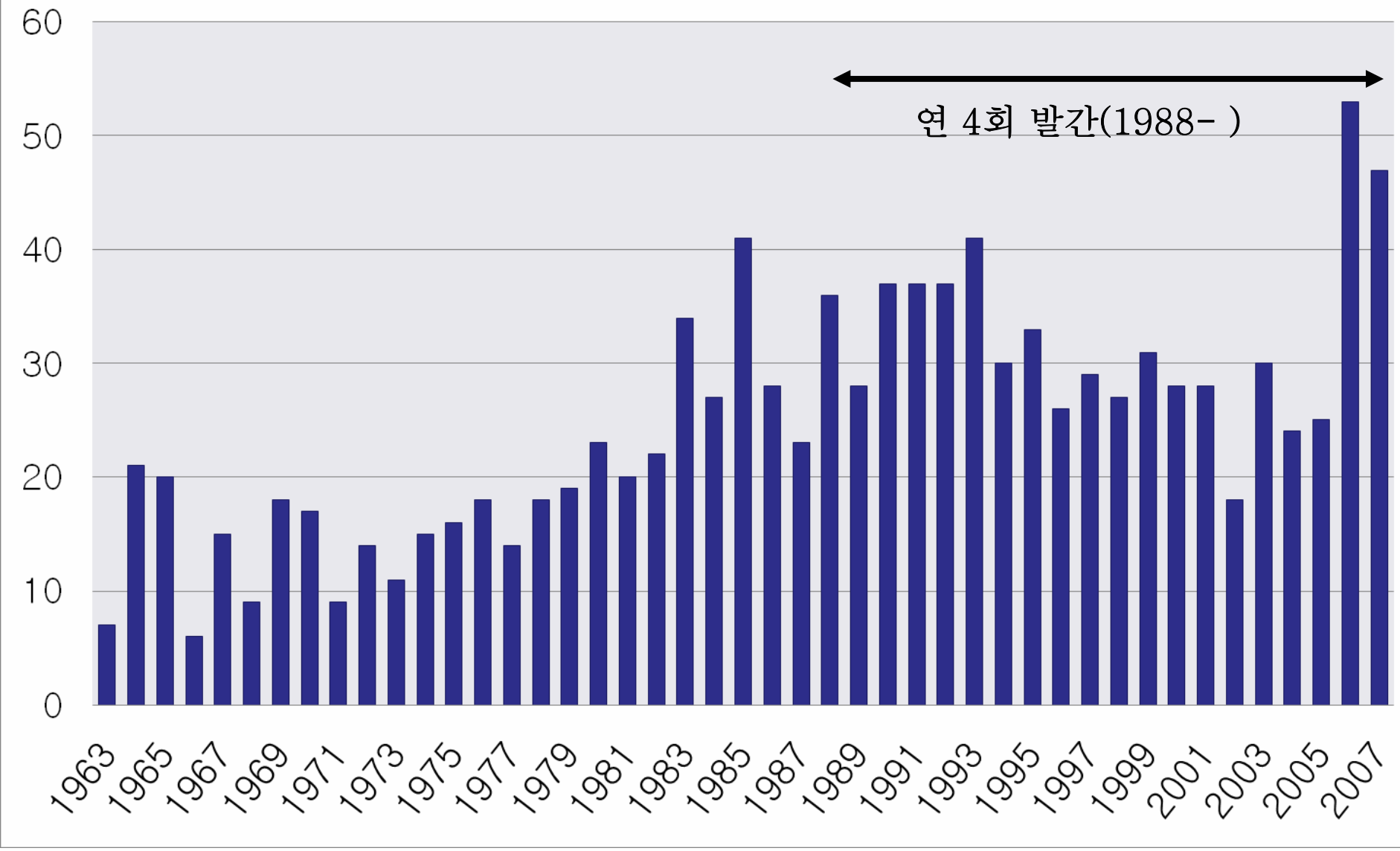
3. SCIE 등재를 위한 노력과 실패의 연속



SCI 학술지의 KJP 논문 인용 빈도



최근 논문 수록 편수 증가


60
50
40
30
20
10
0
연 4회 발간(1988-)
1963
1965
1967
1969
1971
1973
1975
1977
1979
1981
1983
1985
1987
1989
1991
1993
1995
1997
1999
2001
2003
2005
2007

:: 편집부문

❖ 전문편집인 및 외국어 전문 교정인 확보실적

- 전문편집인: 1명 (이소정 석사, 문헌정보학 전공).
- 외국어 전문 교정인: 하리스코 John Roberts 외 3-4명.

❖ 외국인 우수논문 유치 및 외국인 논문 비율 향상

- 2006년: 논문 총 53편 중 외국인 우수논문 13편 (24.5%) .
- 2007년: 논문 총 47편 중 외국인 우수논문 21편 (44.7%).

❖ 외국 전문 출판사에 의한 학술지 편집 및 배포

- 현재까지는 전적으로 국내 출판사에 의해 발행하고 있음.
- 배포처: 국내 450곳, 국외 110곳 배포.

:: 심사부문

❖ 게재논문의 질 향상 및 독창성 제고

- 편집위원, 심사위원들 매년 2-3회 각 종 워크샵 참여. 2007년도 후반기에 전회원을 대상으로 논문작성 관련 워크샵 개최 할 예정.
- 첨단 연구 주제 및 최신 실험기법 등에 관한 세미나 개최 (연 5-6회).

❖ 심사위원단 구성 및 운용

- 논문 1편당 심사위원 2인 및 편집위원 1인, 총 3인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.
- 심사위원은 대부분 (90% 이상) 기생충학 전공 교수이며, 인접 학문 분야 전문인에게 의뢰 (10% 정도). 외국 저명 학자에게 의뢰 (10% 이내).

:: 심사부문

❖ 심사위원으로 외국의 저명 연구자 확보 및 활용

- 현재 편집위원 중 30%가 외국인 저명 학자이며, 그 외에 세부전문 분야 심사 위원으로 연간 5-6명 초빙.

❖ 논문 심사방법 및 게재절차의 체계화

- 심사기준, 절차 등이 학술지 목적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음.
- 논문 접수부터 게재까지 On-line Manuscript Management System (MMS) 및 e-mail을 통해 시행 중.

❖ 기타 관련사항

- KJP가 2008년도부터 SCI-E에 등재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투고 논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➔ **논문 심사가 더욱 강화되고 게재율은 낮아질 예상.**

:: 재정자립부
문

❖ 학술지 발행기관의 대응자금 현황과 예산확보

- 현재 논문 인쇄비 (저자 부담) 50%, 학회 지원금 50%로 운영하고 있음.
- 학회 지원금은 학회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음.
- 재정 자립을 위하여 기금 확보가 필요함. 현재 1억 5천만 원의 학회 발전 기금이 있음.

❖ 재정 충당을 위한 계획

- 회원들의 기금 출연
- 학진, 과학재단, 과기총 지원,

4. SCIE 등재 결정에 도움이 된 요인의 분석

- ❖ 완전 영문학술지로 전환한지 15년이 경과되어 영문학술지로 자리를 잡음
- ❖ KJP impact factor와 피인용빈도의 급격한 증가
- ❖ On-line system에서 논문 전문 무료 제공(PubMed, KoreaMed, Scopus 등)
- ❖ 발간일 준수(3월호: 3/10 경에 발간, 3월을 넘기지 않음) 및 e-pub 조기 실행
- ❖ 게재 논문 편수의 증가(unique 한 내용의 논문 증가
- ❖ 편집 업무에 완벽을 기함

5. 맺음말

KJP가 SCI의 문을 두드린 지 15년 만인 2008년부터 SCIE에 등재키로 결정되었다.

등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

[1]완전 영문학술지로 전환 후 자리를 잡은 점, [2] impact factor의 급격한 증가

[3]피인용빈도의 급격한 증가 [4]on-line에서 논문 전문 제공,

[5]게재 논문 편수의 증가(영향력 있는 논문), [6]거부율 증가, [7]발간일 준수,

[8]편집의 완벽성 등일 것으로 판단한다.

감사합니다